

광주·전남 지자치장 최소 48% 물갈이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지역 기초단체장의 대폭 물갈이가 현실화되고 있다.

25일 광주와 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와 전남 27개 시장·군수·구청장 중 13곳(48%)이 사실상 교체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후보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본선 결과에 따라 물갈이 폭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남지역에서 현역 기초단체장이 잇따라 당내 경선에서 패배하면서 교체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경선패배·3선연임제한·비리연루 낙마 등

27곳 중 13곳 교체 확정...본선 결과 따라+α

여수 주철현, 순천 조충훈 장흥 김성, 강진 강진원 등 민선 6기 단체장 4명이 전남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했다.

여기에 3선 연임 제한으로 출마를 하지 못하는 구례군수와 고흥군수 2자리도 자동 물갈이 된다.

각종 비리에 연루돼 현역 단체장

이 낙마한 3곳도 '무주공산' 지역으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무안군수 보성군수, 해남군수 등 3곳이 해당된다.

이와함께, '비부' 의혹이 불거져 현 군수가 불출마를 선언한 함평군수도 교체되는 등 전남 22곳 중 10곳이 물갈이 된다.

광주 5개 기초단체장 선거 중 3선 연임 제한으로 현역이 출마를 하지 못하는 광주 북구청장과 시장 도전에 실패한 광주 남구청장과 광산구청장 선거도 현역이 없는 무주공산이다.

광주·전남지역 기초단체장 27곳 중 13곳이 사실상 물갈이 됐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무소속 후보가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도 있어 현역 물갈이 폭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민주평화당이 25일 무안 전남도의회 회의실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의를 갖고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다.

평화당, 전남서 '드루킹·불법경선' 더불어민주당에 공세...민심 구애도

민주평화당이 25일 전남 무안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의를 갖고 호남 민심잡기에 나섰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전남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선대위회의에서 호남 지역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에 공세를 펼쳤다.

김경진 상임선대위원장은 "호남에서 경쟁구도가 만들어져야만 지역 발전이 이룩될 수 있다"면서 "실제로 23일 오후 무안 현역 '민주평화당 소속 지방의원들과 지자치단체장을 뽑아주셔야 우리 호남지역의 발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용주 전남도당위원장은 댓글 조작 사건(필명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에 특검수용을 요구하는 한편, 전남지역 불법 민주당 경선을 주장하면서 철저한 조사 및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경선결과 발표가 보류됐다. 경선 과정에서 대리 투표 등 부정투표 사례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면서 "실제로 23일 오후 무안 현역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과 지자치단체장을 뽑아주셔야 우리 호남지역의 발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경진 상임선대위원장은 "호남에서 경쟁구도가 만들어져야만 지역 발전이 이룩될 수 있다"면서 "실제로 23일 오후 무안 현역 '민주평화당 소속 지방의원들과 지자치단체장을 뽑아주셔야 우리 호남지역의 발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호남 광역단체장 2군데 내정단계...4월말 후보 선정" 전남지사 후보 박지원 불출마면 민영삼 최고위원 유력

당 대표인 조배숙 공동선대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 정통성을 계승한 정당이 평화당이다.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면서 "남북정상회담은 특정정치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다. 정파를 넘어 지원하고 성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권핵심 인사의 여성관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다.

조 위원장은 "강성권 전 민주당 사상구청장 후보는 예비서를 위력에 의해 폭행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유사한 사건일 가능성이 엿보인다"면서 "그가 누구나 문재인 대통령의 의원시절 보좌관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다. 대통령은 타협민 행정관을 아직 결에 두고 있다. 범죄적 여성관을 가진 타협민 청와대 행정관을 해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은 "무안 봉단면에서 사람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축 쓰여진 자료가 있다. 지역에 전화가 오면 운동원들이 그 사람들 이름을 대고 주민등록번호를 누른 후에 대리통화를 해서 투표를 한 자료이다"면서 "경찰, 검찰은 빨리 경선 부정의 내용을 밝혀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은 "무안 봉단면에서 사람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축 쓰여진 자료가 있다. 지역에 전화가 오면 운동원들이 그 사람들 이름을 대고 주민등록번호를 누른 후에 대리통화를 해서 투표를 한 자료이다"면서 "경찰, 검찰은 빨리 경선 부정의 내용을 밝혀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강성권 전 민주당 사상구청장 후보는 예비서를 위력에 의해 폭행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유사한 사건일 가능성이 엿보인다"면서 "그가 누구나 문재인 대통령의 의원시절 보좌관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다. 대통령은 타협민 행정관을 아직 결에 두고 있다. 범죄적 여성관을 가진 타협민 청와대 행정관을 해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의원이 전남지사에 출마하지 않을 경우 민영삼 최고위원이 전남지사 후보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스

민주 광주 서구갑, 들고 돌아 경선 확정

송갑석 "승리 매진" vs 박혜자 "곤혹...최대 피해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결정 방식이 들고 돌아 결국 경선으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6·1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서구갑 재선거 후보를 박혜자 전 의원과 송갑석 광주 학교 이사장 간 양자 경선을 거쳐 확정하기로 25일 최종 결정했다. 경선은 27~28일 양일 간 권리당원 100% ARS 투표로 진행된다.

백혜련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성단체들이 여성 의무공천을 많이 주장했기 때문에 박 전 의원에 대한 전략공천을 고려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여러 사정이 있어 논의 끝에 경선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여러 사정은 전략공천에 대한 송 후보의 반발과 훗날 집회로까지 이어진 지역 내 반발을 애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합하던 광주 서구갑이 도마위에 오른 건 지난날 28일,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후보 공모에 나선 서울 노원병과 송파를 전남 영암·무안·신안과 달리 서구갑을 공모에서 제외하면서부터다. 전략공천을 염두하고 공모에서 제외된 것 아니냐는 말이 돌기 시작했고 의혹이 반발로 번지자 당은 뒤늦게 공모지역에 포함시켰다.

그렇게 양자 경선으로 흐르던 분위기는 지난 18일, 중앙당 공관위가 '서구갑 재선거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후보선출의 열쇠를 전략공천위원회로 전격 이관하면서 반발 여론이 들끓어오른 것이다.

2012년 제19대 총선에 이어 또 다시 전략공천 파동이 벌어진다. 6년 전에는 여성 2명이 나섰다가 한 명이 중도 포기하면서 박 전



의원이 자연스레 전략공천됐고 이번에는 박 전 의원을 염두에 둔 여성 전략공천이 추진되면서 "두 번이나 이럴 순 없다"는 반발이 일었다.

결국 공관위는 이날 비공개회의 끝에 전략공천 카드를 접고 경선으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한달 새 공모 제외→공모 실시→전략공천→경선으로 오락가락한 셈이다.

이에 송 후보는 "최고위가 상식과 순리에 따라 분노한 광주 민심을 받아들였으며, 이는 광주시민과 당원들의 위대한 승리"라며 "공정 경선을 통한 승리를 위해 뚝뚝뚝 걸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 전 의원은 "곤혹스럽다"며 "중앙당이 왜 전략공천을 하려고 했고, 왜 이를 손바닥 뒤집듯 반복했는지 납득할 만한 해명과 배경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공당의 전략공천 방침이 1주일만에 급선회하면서 혼란과 사실왜곡 현상이 나타난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특히 상대 후보의 거짓 주장(이중 수혜 등)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번 공천파동의) 최대 피해자는 박혜자"라고 강조했다.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재선거 막판까지 '시끌시끌'

대리투표 의혹 제기여 여론조사 발표 미룬채 현장실사

더불어민주당의 전남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재선거 경선이 불공정 시비 등으로 중앙당에서 현지 실사를 벌이는 등 막판까지 시끄럽다.

민주당은 25일 중앙당 임종석 조직부총장과 송기현 법률위원장 등을 전남 영암·무안·신안지역에 보내 대리투표 의혹에 대한 사실여부 파악에 나섰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서, 후보 사무실 등을 방문해 실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방문은 영암·무안·신안지역구 재선거에 출마한 백재욱 예비후보가 지난 23일 후보 공천을 위한 여론조사를 두고 특정 후보의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백 후보는 "특정 후보 운동원이 마을회관에 모여 주민들의 휴대전화에 걸려오는 전화를 대신 받아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백 후보의 의혹 제기를 수용해 당초 전날 오후 발표할 예정이었던 ARS여론조사 결과를 전격 보류했다.

현지 실사를 벌인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오후, 늦어도 26일 오전 개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앙당의 잇따른 영암·무안·신안 재선거 제도에 지역의 반발도 거세다. 더욱이 선관위와 경찰서에서도 대리투표 의혹과 관련 "실체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의 소지를 안겨주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제보가 있어 노인정 등으로 직원을 보내 사실 여부 파악에 나섰으나 대리투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를 비롯한 6·13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 등이 25일 오후 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경선결과의 조속한 개표'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표 등 불법사실은 적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남도선관위의 디지털포렌 방식까지 동원해 불법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삼석 후보 측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상적으로 치러진 경선의 개표와 발표를 더 이상 미루지 말아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3~24일 안심번호 투표 결과 발표를 상대후보가 문제를 제기한다는 이유로 여과없이 보류했다"면서 "정상적으로 치러진 경선의 개표결과를 즉시 발표해 줄 것"을 촉구했다.

뉴스스

야호센터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